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7호 【루게 제24730호】 주제 103(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천만군민의 애국의 열정과 지혜, 슬기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불러일으켜

#### 강동지구 탄광련합기업소에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화력탄생산투쟁으로 들끓는 혁명탄광만이 아니다. 강동, 명남탄광을 비롯하여 련합기업소의 모든 탄광, 광장들에서 일군들과 탄부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아 뚝고나가면서 련일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선봉인민,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평양시당위원회 지도도에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탄부들을 석탄생산투쟁에 힘있게 불려일으키기 위한 조직적조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고 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은 화력탄생산을 맡은 혁명탄광에 내려가 채탄광, 굴진공들에게 당의 의도를 깊이 심어주고 혁신적정기사업에 전투적으로 벌려 탄부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려일으켰다.

당위원회의 지도도에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은 아베탄광들의 광장에 같이 들어가 탄부들과 일도 같이하고 탄부들의 가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친현육의 심정으로 풀어주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폭발시키고 있다.

화력탄생산을 맡은 혁명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 데 있다고 혁신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기 위한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탄광초급당위원회에서는 방송선전차활동과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한편 수백개의 속보판과 막장전투소보를 가동적으로 게시하여 전투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대중의 높은 열의에 맞게 탄광에서는 월전투표목을 계획보다 높이 세우고 모든 광장에서 굴진을 마련하도록 전투적과 지휘를 짜고들고 있다. 이와 함께 전망기, 압축기 등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잘하고 탄자보수

에 힘을 집중하여 케번 석탄을 제때에 실어내도록 하고 있다.

로직공의 백영길고속도굴진소대, 리재상굴진소대, 총비경의 차광수청년동력대, 안성남굴진소대를 비롯한 많은 굴진소대들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사회주의생산투쟁의 열풍을 일으키며 드세게 압박을 걸어내고 있다.

총비경의 로명국채탄소대원들이 서로 돕고 이끌어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일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있을 때 총비경의 김철수채탄소대, 로직공의 지창길채탄소대의 채탄공들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생성의 혁명정신으로 뚫고 헤쳐내며 교대당 석탄생산실적을 계속 높이고 있다.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높이 발양되는 속에 청년들의 채탄공들은 뜻밖의 정황으로 석탄운반이 멈춰서게 되자 집으로 운반전투를 벌리며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위훈을 세웠다.

탄광의 가두너성들도 석탄전진선을 함께 지켜냈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광들을 찾아가 너머기동에 예술선동대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는 한편 출된 탄수집을 비롯하여 노력적지원을 잘하여 탄부들의 생산열의를 북돋아주고 있다.

탄광의 가두너성들도 석탄전진선을 함께 지켜냈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광들을 찾아가 너머기동에 예술선동대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는 한편 출된 탄수집을 비롯하여 노력적지원을 잘하여 탄부들의 생산열의를 북돋아주고 있다.

### 올해공사과제 지표별로 수행

#### 희천5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황해남도려단에서

전망, 전국, 전민이 산악같이 떨쳐나 올래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는 속에 희천5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황해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동력대원들이 방대한 올해공사과제를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현장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곳 려단에서는 올해 성토와 콘크리트치기과제를 지난 9월말까지 끝내며 이어 또다시 주요공사과제를 붙이 번쩍 나게 해짐으로써 올해전투과제를 두달이상이나 앞당겨 지표별로 완수하였으며 연례와 발전기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물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켰다.

이 눈부신 성과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용대한 대자연계조수상을 빛나게 관철하려는 려단 전체 지휘관들과 동력대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희천5호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황해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동력대원들은 높이 내세운 올해공사과제를 기어이 정밀한 결사관철정신은 좌안연계공사에서 더 높이 발휘되었다.

비롯한 대상공사들을 분배있게 추진시켜왔다.

려단지휘관들은 화력식정기사업과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동력대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키면서 주력대상인 연계공사들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통이 크게 벌렸다. 특히 연계건설을 위한 대규모의 가물막이공사를 제일 먼저 진행하고 정초부터 려단의 역량을 총집중하면서 6개 연계수문기둥구간의 암반 및 정리굴착을 겨울철전으로 끝내지 못한 전면공정들을 드세게 벌릴수 있도록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각종 양수설비들과 발전기제들이 대폭 증가되고 버려져버린 동력대원들의 함마전, 맞들이전이 고조를 이루며 벌어지는 속에 불과 2개월동안에만도 수만m<sup>3</sup>의 굴착량이 기록되고 많은 양의 골재채취와 휘체제작이 선행되어 발전소건설의 물과 구가 열렸다.

3월초 콘크리트치기공사에 진입한 신천, 벽성, 은봉, 강명, 세명려단을 비롯한 각 대대전투원들은 앞선 작업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 연계기초와 보강판, 무덤의 수문기둥타입공사들을 분배있게 벌렸다. 이들은 양수기와 환환기들을 집중 투입하면서 연속콘크리트기기를 줄기차게 벌려 불과 3개월동안에 6개 수문기둥구간의 연계공사들을 기본적으로 해제의 높은 혁신을 창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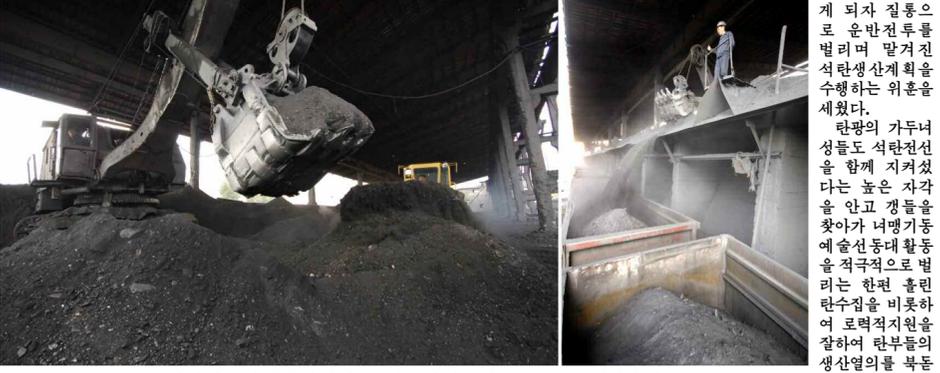
려단지휘관들과 동력대원들의 결사관철정신은 좌안연계공사에서 더 높이 발휘되었다.

이들은 좌안의 5개 연계수문기둥구간공사를 앞당겨 끝낼 대담한 목표에 지난 6월 중순 좌안의 높은 지대 수공굴착과 가물막이공사에 산악같이 떨쳐나 총돌격전을 벌렸다. 불리한 날씨와 지형조건으로 하여 기계설비들의 리용에 난관이 조성되었지만 도탐사관리국대과 장연, 응진, 은천려단을 비롯한 각 대대 전투원들은 맞들이전, 질투전을 줄기차게 벌리며 불과 10일동안에 2만여m<sup>3</sup>의 굴착 및 성토공사과제를 해제하였으며 그 기세로 연계콘크리트기기를 빠른 속도로 내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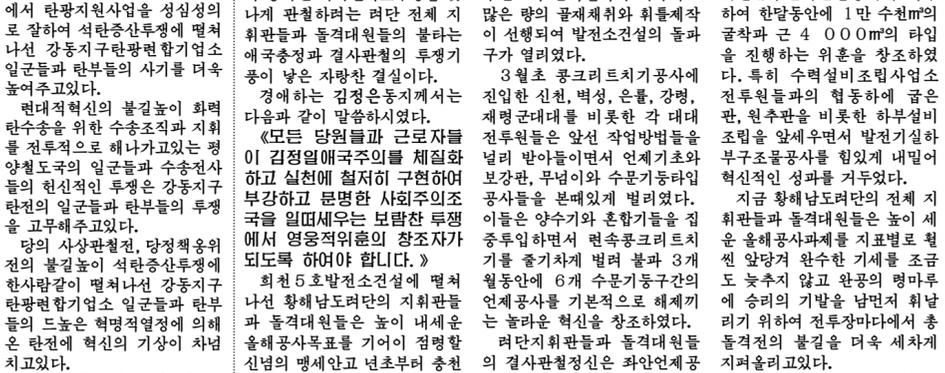
하여 장마철전으로 연계수문기둥구간의 콘크리트치기공사를 90%이상 수행하였으며 편이 백수십m구간의 심벽콘크리트타입을 진행해야 하는 좌안비일류부연계건설공사에 착수하여 한달동안에 1만 수천m<sup>3</sup>의 굴착과 근 4 000m<sup>2</sup>의 타입을 일정한 위훈을 창조하였다.

3월초 수력설비조립사업소 전투원들과의 협동하여 끝낸, 원추관을 비롯한 합부설비조립을 앞세우면서 발전기설하부구조물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황해남도려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동력대원들은 높이 세운 올해공사과제를 지표별로 월전 앞당겨 완수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완공의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남기며 휘날리 기어이 정밀한 결사관철정신은 좌안연계공사에서 더 높이 발휘되었다.



— 려단지휘관과 련합기업소 형봉탄광에서 — 본사기자 찍음



— 특파기자 최 수 복

## 30여개 대상공사 마감단계에서 추진 |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

### 단 천 시 에 서

당의 혁명한 령도밑에 건설에서 새로운 변혁기가 열리고 있는 속에 단천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게 건설을 통이 크게 벌려 도시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다.

최근 몇해어간에 학각지붕을 없애 건축물이 훌륭하게 개건되고 덩치큰 온실과 단천공원이 번듯하게 건설되었으며 시내 도로가 새로 포장되었다. 올해에 들어와 시에서는 학교와 살림집, 버섯장장을 완공하고 미려한 경관, 문화회관건설 및 개건공사 등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다. 시에서는 지금 30여개 대상들에 대한 방대한 건설 및 개건공사가 마감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시의 일군들은 로동계급이 집중되어있는 단천시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영광을 길이 빛내이며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 있다.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도시건설전망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단계별목표를 세운데 기초하여 몇해어간의 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김석순, 리종준동무를 비롯한 책임일군들은 건설지휘부의 한성원이 되어 설계와 시공, 자체 포장과 로직공을 짜고들면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나를 위한 군대의 지휘관들처럼》을 실천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돌고 돌고 뛰어나고 있다. 시의 일군들은 평양시와 여러 지방의 좋은 건설경험을 배우고 합동남도도시설계연구소 설계원들과 지혜를 합쳐가며 자기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게 시를 잘 꾸러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두개 대상도 아니고 동시에 30여개의 대상에 달하는 건설 및 개건공사를 위대담 해체시켜야 하는 조건에서 일군들은 자체보장을 앞세우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화력식정기사업에 참가하여 벌리면서 인민군대식으로 건설의 불바람을 세

차례 일으켜 온 시가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고 있다.

시의 일군들은 세멘트생산기지의 능력을 확장하고 마감단계생산기지와 칠강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러놓는데 맞게 단천청년발전소와 자체탄광운영에 힘을 넣어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강재, 마감재생산을 앞세우고 있다. 도시건설대와 농촌건설대, 청년동력대의 건설자들은 덩치가 큰 대상들을 만나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이미 돼지목장과 복합비료공장이 번듯하게 건설되어 운영단계에 들어갔다. 신단천지구와 광천지구에 로라스케트장을 갖춘 공원을 꾸러지고 소총살림집이 완공되었다. 소총살림집과 버섯장장을 비롯한 여러 대상건설도 완공되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으로 간직하고 자기가 사는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러주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제적의 창조자들과 이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계획한 공사과제들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조직적정기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 있다.

도시에서는 이미 군민협동작업으로 강제시의 장자장기습을 마

##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불철적재부를 늘이고 조국강토를 아람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탁력으로 꾸림으로써 후대들에게 만만대기의 창조물들과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줄수 있게 합니다.》

당의 용대한 국토건설수상을 높이 받들고 자강도와 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자 강 도 에 서

자강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도로의 개건 보수와 강화천정리,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러기 위한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도에 일군들은 도로의 면모를 일신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는 한편 강화천정리와 나무모생산준비,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러는 사업을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시, 군당위원회의 지도에서는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높은 자각을 안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제적의 창조자들과 이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계획한 공사과제들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조직적정기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 있다.

도시에서는 이미 군민협동작업으로 강제시의 장자장기습을 마

라 뻐어나간 도로의 면모를 현대적미감이 나게 일신시켰다.

강제-만포령길도로개건공사에 동원된 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방대한 토량을 처리함으로써 공사들을 훨씬 앞당겨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젖혔다. 대중의 드높은 애국적열의속에 강제시의 외용-내용물환선도로의 여러 구간이 콘크리트로 새로 포장되었고 우시군 하창지구 수km의 새 도로가 생겨났다. 또한 초산군에서는 구룡지구의 도로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었다.

화평군에서는 자성강에 콘크리트다리를 훌륭하게 일떠세웠고 초산군에서도 중포 1다리를 새로 건설해놓았으며 강계-만포도로구간에 3개의 콘크리트다리가 새로 건설되었다.

장자강, 청천강, 자성강을 비

롯한 도안의 많은 강하천들에 14만m<sup>2</sup>의 장성이 일떠지게 쌓이고 강계시의 남천, 북천, 북천, 북천보수공사가 힘있게 벌려져 국토의 면모가 한층 일신되었다.

이미 도에서는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수층이 좋은 나무모종재체계획을 11.2%로 넘쳐 수행하였다.

시, 군들에서 산이 많은 지대적특성에 맞게 야계공사도 힘있게 내밀고 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도에 시, 군들에서는 도로의 기술개건과 다리건설, 야계공사에 필요한 건설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다.

강계시, 우시군, 초산군, 희천시, 성간군이 이번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러기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였었다. 나무모종재체계획을 11.2%로 넘쳐 수행하였다.

시, 군들에서 산이 많은 지대적특성에 맞게 야계공사도 힘있게 내밀고 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도에 시, 군들에서는 도로의 기술개건과 다리건설, 야계공사에 필요한 건설

해장안해 기초하여 전반적인 도로들의 견고성과 문화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다. 군에서는 수백년력의 파쇄장을 꾸러놓고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자체로 마련하여 도로의 노반공사에 적극 리용하고 있다.

통천군에서는 추지평평길과 근로자들은 건설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도로제도의 면모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힘을 과시하는 선경으로 보다 훌륭히 일신시켰다.

특파기자 송 세 웅

련한 보여주기행 진행에 이어 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위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도국도환경보호관리국에서는 도로기술개건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능력있는 일군들을 시, 군들에 내려보내어 기술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경에서는 군안의 도로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내걸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다. 군의 책임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도로의 기술상태를 빠짐없이 리

## 세차게 라번지는 탄광지원의 불길

### 평 안 남 도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려면 탄광들에 갱공과 설비, 자체를 위한비 생산보장하여주며 생산한 석탄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합니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석탄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도당위원회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석탄전진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조직적정기사업을 짜고들고 있다. 책임일군들은 해당 부문들과 각급 기관, 기업소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탄광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항목들을 정하고 그 집행대책을 철저히 세워놓았으며 능력있는 일군들을 탄광들에 내려보내어 결린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탄광지원의 날을 정하고 도급기관과 시, 군, 공장, 기업소들에서 탄광을 로직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만도 도와 시, 군들에서는 소공구, 식로품, 생활필수품 등 많은 지원물자들을 싣고 탄광들에 나가 탄부들에게 인거주어 석탄생산투쟁에 로직적 고부추동하였다.

도체신관리국, 도농촌경리위원회, 도국도환경보호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들이 석탄생산에서 결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의 일장에 서고 있다. 도체신관리국 일군들은 동발나무, 소공구를 비롯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인포탄광에 찾아가 탄부들에게 인거주었으며 석탄생산에서 결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그 해결을 위한 대

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안주시 일군들은 봉천탄광에 많은 지원물자를 넘겨주고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더 많은 석탄을 캐내어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고 하면서 탄부들의 생산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형봉탄광에 달려나간 중산군 일군들은 수백개의 소공구와 생활필수품, 많은 식로품을 탄부들에게 넘겨주고 갱공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석탄생산투쟁에 그들을 힘있게 불려일으켰다.

이밖에도 개천시, 덕천시를 비롯하여 시, 군책임일군들이 탄광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다.

특파기자 리 혁 철

하였다. 원성정년탄광에 나간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많은 물자들을 탄부들에게 인거주어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함께 탄차를 밀면서 석탄생산으로 당을 받들어나가고자 혁신적정기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도국도환경보호관리국의 일군들도 원성정년탄광 3개 탄부들에게 소공구, 피대, 장갑을 비롯하여 생의적 마면한 물자들을 인거주어 채탄5중대 채탄공장에서 애로되는 문제를 풀어나가 탄부들도 두가 석탄생산에서 자기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북창군의 책임일군은 수많은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인포탄광에 찾아가 탄부들에게 인거주었으며 석탄생산에서 결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그 해결을 위한 대



— 김정숙형양방직공장에서 —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건설의 맨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가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일군들

## 과학기술핵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라의 위대한 과학기술인재양성 기지이며 과학기술핵심공간을 키워내는 원동장입니다.》

박차를 가한 선두마차의 용맹한 기상이런가 세계를 앞서나갈 야심만만한 투지와 배짱을 안고 진척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 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투철한 결사관철의 정신과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기풍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있다.

우리는 대학의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기자: 대학의 그 어디에 가보아도 분위기가 무르익어 다드라는 느낌을 받았다.

총장 홍서헌: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기어 이 보답하자고 지금 온 대학이 불도카마냥 부글부글 끓고있다.

대학을 하루빨리 일류급대학으로 만들고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라는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다.

모든 교원, 연구사들이 결의 목표들을 높이 세운데 기초하여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새차례 일으키고있다.

대학 일군들과 나누는 이야기

교육자살림집임사가 끝나자마자 수많은 교원, 연구사들이 연구사업을 위해 저저마다 먼길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부장 리강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계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시기를 발표하시어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사업에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교원들의 자질이 높아야 시대가 요구하는 세대의 인재들을 원만히 키워낼수 있다.

대학에서는 단계별로 나누어 모든 강좌, 교원들의 자질을 세계 일류급의 수준에 올려세울데 대한 목표를 세우고 조직적 사업을 적극 짜고들고있다.

특히 최근과학기술문헌들과 자료들을 연구하고 습득하는 데서 판권자료로 되는 외국어가공공장에 필요한 수많은 설비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설계를 완성하고 제작준비를 다그치는 과정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첨단기술제품개발을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아름답게 나서고있지만 우리는 다음해 태양절까지 기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학에 입학하려는 지방자들을 대폭 늘여나게 하였다. 학생들은 저마다 대학교원이 되겠다고 부지런히 공부한다.

총장 홍서헌: 대학교원, 연구사들의 분발한 모습을 볼 때마다 대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흥분과 세계를 굽어보게 하는 민족자존심이 가슴을 찡찡하게 해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대학에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시고 사랑하는 혁명전사의 이름을 달아 김책공업대학(당시)으로 부르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학을 정보산업혁명의 개척자로 내세워주시었으며 오늘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두마차라는 위대한 믿음의 세계로 힘을 주시고 사색과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쳐주셨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선두마차

◇ 나라의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이며 원동장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불같은 열의를 안고 분발해나갔다.

대동강반에 새로 일떠선 초고층살림집의 불같은 창가마다에서 행보의 노래소리가 끊이지 울려나올수록 과학기술핵심공간을 질적으로 더 많이 키워내는 교육사업성과로 보답할 일념이 깊어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대학의 사명감과 임무에 맞게 강성대국건설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는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더 잘 키워내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과학기술을 끌고 나가는 선두마차가 용을 쓰며 세계를 향하여 더 힘차게 질주하기 시작하였다. 교육과 과학, 생산이 하나로 밀착된 지식경제시대의 일류급대학, 기술교육과목의 학습중심, 원격교육중심의 원대한 목표를 안고 시대의 앞장에서 소리치며 질주해나갈것이다.

◇ 선두마차라는 부름은 용감한 선구자들만이 받아들일수 있는 값높은 칭호이다.

우리 조국은 당의 요구라면 몸을 부시며 산을 뚫고 바다를 메워주사도 기어 이 실천하고자 하는 시대의 선구자들에 의해 령사의 모진 난관과 시련을 뚫고넘어쳐 비약적으로 전진해왔다.

우리 당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시대를 개척하고 선도해나가는 선구자집단이 될것을 호소하였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과학기술을 끌고나가는 선두마차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었다.

선두마차, 이 부름에는 당과 수령의 절대적인

믿음, 크나큰 기대가 담겨져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조국을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에 단숨에 우뚝 올려세워야 할 막대한 과업이 나사고있다.

하지만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지난 시기 이룩한 모든 인내와 성실과 현재의 참재력과 능력으로 보아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지식경제시대의 전열에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다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뜨거운 믿음과 기대가 선두마차라는 글발의 자자구마마다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조국과 인민이 크나큰 기대를 안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바라보고있다. 광명인 재임에 대한 원대한 포부를 안고 힘차게 나아가는 나의 조국이 어디서나 인재를 소려쳐 부르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선두마차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조국과 인민의 기대를 심장깊이 명심하고 우리 당의 과학기술정책, 교육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서야 한다.

◇ 알찬 열매는 품을인것만큼 주렁주렁이다.

인재양성의 질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은 교육내용과 방법이다. 학생들에게 기초지식을 전수하려고만 하여서는 지식경제시대가 바라는 교육의 높이에 도달할수 없다. 새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학생들이 더 빨리 알고 더 잘 활용할수 있게 교육내용을 한시바때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 방향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창조형의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 위하여서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사고를 개발시켜줄수 있는 교수방법들을 부단히 창조해야 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선두마차의 역할을 다할 때 내 나라, 내 조국은 하루빨리 세계의 명마루에 우뚝 올려세워 될것이며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과 믿음은 아름다운 현실로 꽃피게 될것이다.

어마한 우리는 당의 크나큰 은총에 일떠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 어떤 행부의 이야기들이 꽃피고있었다.

그리고는 이곳을 찾았다.

이곳은 집이나 다름을 두드러 보고싶은 심정이었다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끌여당긴 곳은 20대의 연구사가 신나는 1학년 22층 3호였다.

머리털도 교수들과 함께 활활한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편 복판은 가정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를 이끌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후대들을 위하여 환경을 바쳐가야 교육자들이 금방이라도 앉혀 놓은 세계가 부러워하게 내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입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연구소로 나갈 준비를 하던 서광동무가 우리를 반겨맞아주었다.

방들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그는 격정적으로 이야기하시였다.

《이제 새 집에 든지 20여일이 되어오지만 아직도 꿈속에서 사는것 같습니다. 공간같은 이면집이 20대의 젊은 연구사인 내에게도 차례질줄은 정말 몰랐습시다.》

소박한 말이었지만 우리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려주었다.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어마한 우리는 당의 크나큰 은총에 일떠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 어떤 행부의 이야기들이 꽃피고있었다.

그리고는 이곳을 찾았다.

이곳은 집이나 다름을 두드러 보고싶은 심정이었다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끌여당긴 곳은 20대의 연구사가 신나는 1학년 22층 3호였다.

머리털도 교수들과 함께 활활한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편 복판은 가정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를 이끌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후대들을 위하여 환경을 바쳐가야 교육자들이 금방이라도 앉혀 놓은 세계가 부러워하게 내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입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연구소로 나갈 준비를 하던 서광동무가 우리를 반겨맞아주었다.

방들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그는 격정적으로 이야기하시였다.

《이제 새 집에 든지 20여일이 되어오지만 아직도 꿈속에서 사는것 같습니다. 공간같은 이면집이 20대의 젊은 연구사인 내에게도 차례질줄은 정말 몰랐습시다.》

소박한 말이었지만 우리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려주었다.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집단으로

어마한 우리는 당의 크나큰 은총에 일떠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 어떤 행부의 이야기들이 꽃피고있었다.

그리고는 이곳을 찾았다.

이곳은 집이나 다름을 두드러 보고싶은 심정이었다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끌여당긴 곳은 20대의 연구사가 신나는 1학년 22층 3호였다.

머리털도 교수들과 함께 활활한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편 복판은 가정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를 이끌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후대들을 위하여 환경을 바쳐가야 교육자들이 금방이라도 앉혀 놓은 세계가 부러워하게 내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입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연구소로 나갈 준비를 하던 서광동무가 우리를 반겨맞아주었다.

방들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그는 격정적으로 이야기하시였다.

《이제 새 집에 든지 20여일이 되어오지만 아직도 꿈속에서 사는것 같습니다. 공간같은 이면집이 20대의 젊은 연구사인 내에게도 차례질줄은 정말 몰랐습시다.》

소박한 말이었지만 우리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려주었다.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우리 나라 최정화선수  
녀자력기 58kg급경기에서 금메달쟁취

2014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리정화선수가 2014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 녀자 58kg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11일에 있던 경기에서 리정화 선수는 첫시작부터 자신있게 구간봉을 틀어쥐고 마지막투기에 이르렀다. 모든 동작을 침착하게 진행하였다.

그는 추켜올리기종목에서 133kg을 틀어올리고 제1위를 차지하며 구간봉을 틀어쥐고 마지막투기에 이르렀다. 모든 동작을 침착하게 진행하였다.

그는 추켜올리기종목에서 133kg을 틀어올리고 제1위를 차지하며 구간봉을 틀어쥐고 마지막투기에 이르렀다. 모든 동작을 침착하게 진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예술은 5대혁명가극의 출현과 더불어 매우 높음은 단계로 발전하였습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화혁명에 이어 가극혁명을 일으키시어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무대에 올리려는 력사적의무를 빛나게 실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총련 일군 대표단  
비전향장기수와 상봉

최일경 제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이 12일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인 비전향장기수 최태국동지와 상봉하였다.

최태국동지는 수십년간이나 살기봉기를 철강속에 견뎀으로써 조국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싸운데 대하여 그는 감동적으로 이야기하시였다.

그는 대표단성원들이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백두산 대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라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최일경 부장은 혁명적외조를 끝까지 지켜가는 통일애국투사들의 투쟁선전에서 큰 고무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대원수님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두리에 철혈같이 굳게 서서서서 주체의 리, 애국영웅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모임에서는 비전향장기수들과 가족들, 대표단성원들의 예술소품공연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며, 브르니스와브 표보로프스키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며, 조선과 불스가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의 정신을 체질한 인재공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배수위인재들의 사랑과 믿음의 령도가 뜨겁게 있는 우리 대학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주겠다.》

더 좋은 매일,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선두마차를 부른다!

본사기자 김병훈



이러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민심을 등진 반역무리들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거역하는 대결헌장

북남관계에 대한 내외의 불안과 우려가 날로 커지고있는 속에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통일헌장》이라는 것을 조작하려 하고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대결헌장이다.

지금 피폐당은 저들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에 부합되는 《통일헌장》을 《분단 70년이 되는 다음해 반드시 내놓아 통일헌법의 기초가 되게 해야 한다.》고 약속을 들고있다. 가소로운 것은 그 무슨 《국민적합의》와 《국제적지지》에 기초하여 만들어 그것을 집권자의 수표를 받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헌법》이 바뀌어 버리지 않는 《최상의 통일지침》으로 만들겠다고 뉘서리를 치고있는것이다.

피폐당의 《통일헌장》이란 북남관계의 구체적현실을 외면한 실현성없는 공리공단이며 저들의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동족대결정쟁의 집적발발이다.

우리 민족이 바라는 통일은 남조선에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합과 단합을 실현하는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며 우리 민족끼리 아니라 외세에 의거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대결정쟁을 추구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는 집권초기부터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떠벌이면서 체제통일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라는것을 보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체제통일을 이루어보겠다는것이 《드레드넌구상》이라는것 역시 먹고 먹히우는 《도이쉴판트식통일》을 본딴 《휴수통일》을 하겠다는것이다. 《통일대박》론이라는것도 저들의 불순한 체제통일기도를 그 무슨 《대박》이라는 보자기로 감싼 대결

론이다.

체제통일은 곧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전복하겠다는것이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서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체제통일을 주장하는것은 풍화적리 전면대결하자는것이 결국은 문화통일을 부정하는것이다. 피폐들이 운운하는 저들의 그 무슨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에 부합된 《통일헌장》이라는것이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한 체제통일을 위한 대결헌장이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이따위 대결헌장은 우리 겨레에게 절대로 접수될수 없다. 이미전에 리명박대장이 《통일헌장》이라는것을 들고나오자마자 순간에 후지장으로 되어 오물통에 처박힌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 반동일골동품을 현 집권세력이 다시 주어들고 무슨 《공포선언》이나 되는것처럼 황실수설하고있으니 이것은 겨레의 심장속에 간직된 통일헌장도,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도 모르는 알짜무식쟁이, 대결미치광이들의 어리석은 망상이 아닐수 없다.

우리 겨레에게는 이미 민족의 총의를 반영한 조국통일3대헌장이 있고 6.15 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훌륭한 통일대강이 있다. 여기에는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해동안 존재하여 온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통일문제를 가장 공명정대하고도 순조롭게 풀어 나갈수 있는 원칙과 방도들이 담겨져 있다. 그 무엇보다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선언들을 대신할수 없다.

남조선피폐당국이 떠드는 《통일헌장》이야말로 저들의 더러운 정체를 가리우고 여론을 기만하여 반동일대결판판을 더욱 악화하게 매달리기 위한 극악무도한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헌장이다.

피폐들의 《통일헌장》은 동족의 머리 위에 핵자양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반민족정쟁각본이다.

피폐대장이 《통일헌장》의 조작을 통해 추구하는 체제대결의 종착점은 두말할것없이 북침정쟁도발이다.

조국통일위업은 외세를 몰아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며 나라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이다. 여기서 최우선적이며 중핵적인 문제는 민족분열의 현혹이고 조국통일의 최대의 장애물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는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이다.

그러나 남조선피폐들은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등에 미쳐달려서 그것을 구실로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끌어들이 북침핵전쟁연습을 매달려 같이 벌려놓고있다. 지난 10일부터 피폐호전광들이 역대 최대규모의 무력을 투입하여 《호국》의 간판을 내걸고 그 무슨 《호국》을 거두고 일몰을 울려부르고는 더더욱 무뎠다. 피폐들이 현 집권세력 역시 《통일헌장》이요 뭐요 하는 놀음에 계속 매달려다가는 결국 그보다 더 처참한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거역하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매달려자들이 가망이 될 것만 배워있어 역사의 쓰레기통뿐이다.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자주통일의 변함없는 리정표로 삼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을 이루어나가기라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며 민족사의 막을수 없는 흐름이다.

김 향 미

서 미일남조선 《군사정보공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남조선을 군사적교두보로 하여 대조선침략정책과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에 빌붙어 명줄을 부지하고 우리와 팔자끼 대결하며 북침정쟁의 불을 거이 지르려는 피폐대장의 흉악한 속셈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사실들은 남조선피폐들이 떠들어대고있는 《통일헌장》이란 뒤집어놓은 정쟁각본이며 외세의존병에 걸린 정신병환자, 미국의 핵전쟁머슴군으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폭로해주는 고발장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있다.

피폐대장이 악랄한 체제대결론을 내걸고 그 무슨 《통일》에 대하여 떠드는것이야말로 남조선민심에 대한 모독이고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다. 집권하여 지금까지 북남관계악화만을 초래한것으로 하여 궁지에 몰린 피폐당국이 동맹자끼리 《통일헌장》이라는것을 내걸고 그 무슨 《호국》을 거두고 일몰을 울려부르고는 더더욱 무뎠다. 피폐들이 현 집권세력 역시 《통일헌장》이요 뭐요 하는 놀음에 계속 매달려다가는 결국 그보다 더 처참한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거역하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매달려자들이 가망이 될 것만 배워있어 역사의 쓰레기통뿐이다.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자주통일의 변함없는 리정표로 삼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을 이루어나가기라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며 민족사의 막을수 없는 흐름이다.

김 향 미

## 전쟁머슴군의 어이없는 허세

지난 10일 남조선피폐군이 미제침략군과 함께 악명높은 북침정쟁연습인 《호국》훈련에 일제히 돌입하였다. 오는 21일까지 벌어지는 이 불장난 소동에는 피폐군 33만여명과 미제침략군부력 그리고 2만 3 000여명의 기동장비들과 60여척의 함정, 각종 비행기를 등방대한 무력이 투입되었다. 전방군단의 작전계획시행훈련, 기체화보병사단생방훈련, 서해 5개 섬에 대한 방어훈련, 해상 및 해안방위방어훈련, 함상동상훈련, 유도탄발사 및 요격훈련 등의 훈련간판들에서도 침략의 화악과 북침정쟁의 불을 거이 지르려는 피폐대장의 흉악한 속셈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사실들은 남조선피폐들이 떠들어대고있는 《통일헌장》이란 뒤집어놓은 정쟁각본이며 외세의존병에 걸린 정신병환자, 미국의 핵전쟁머슴군으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폭로해주는 고발장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있다.

피폐대장이 악랄한 체제대결론을 내걸고 그 무슨 《통일》에 대하여 떠드는것이야말로 남조선민심에 대한 모독이고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다. 집권하여 지금까지 북남관계악화만을 초래한것으로 하여 궁지에 몰린 피폐당국이 동맹자끼리 《통일헌장》이라는것을 내걸고 그 무슨 《호국》을 거두고 일몰을 울려부르고는 더더욱 무뎠다. 피폐들이 현 집권세력 역시 《통일헌장》이요 뭐요 하는 놀음에 계속 매달려다가는 결국 그보다 더 처참한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거역하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매달려자들이 가망이 될 것만 배워있어 역사의 쓰레기통뿐이다.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자주통일의 변함없는 리정표로 삼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을 이루어나가기라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며 민족사의 막을수 없는 흐름이다.

김 향 미

란쪽한 도전이며 가득이나 침에한 사태를 거이코 전면정쟁발발의 국면으로 끌고가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다. 역시 우리와 팔자끼 대결하려는 피폐들의 흥심은 자루속의 송곳처럼 절대로 감출수 없다. 《호국》훈련의 강령으로 그 무슨 《대화》를 운운하던 피폐들의 억지미소마저 간대없이 사라졌다. 모든것이 예견했던바 그대로이다.

가관은 피폐들이 이번 훈련을 두고 제 흥에 겨워 어느때없이 법석 떠들고있는것이다. 역대 최대규모라느니, 전군이 군사분계선내를 포함한 전면전선에서 훈련을 실시한다느니 하고 누구더러 들은판듯이 피폐를 들고있다. 식민지교용군의 어이없는 허세라 해야 할것이다.

형식상으론나마 상선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하였던 전선작전통제권을 제발 안받겠다고 예견하여 내외의 조소를 자아낸자들이 누구들인가. 그 주제에 제 죽을줄 모르고 사냥군에서 짝죽거리라는 까마귀같이 뉘서리치는 피폐군부대들이 정말 가련하기 그지없다.

국권중에서도 근본인 국권을 외세에 완전히 빼앗긴 전쟁하수인, 값없는 총알받이에 불과한 피폐파는 사실 우리의 상대로도 되지 않는다. 피폐들도 사살아낸 4년전의 《호국》훈련때 연평도에서 우리에게 도발을 걸었다가 처참하게 짓이겨졌던 일을 잊지 않았을것이다. 짐승도 한 번 배웠던 용맹이에는 다시 빠지지 않는다. 그 스스도 전철을 또다시 스스로 밟겠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자들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도발자, 침략자들에게 차레것들은 오직 처참한 죽음을뿐이다. 남조선피폐들은 외세와 아합하여 북침정쟁도발책동에 광분하는것이 스스로 멸망의 합정을 파는것이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내외호전광들이 끝끝내 도발을 걸어오던면 주저없이 맞받아나자 침략자들의 야성을 송두리채 들어내고 이 땅에서 전쟁의 군권을 깨우기 청산해버릴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피폐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정쟁도발책동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감위력한 선군의 보검으로 단호히 깎아부릴 것이다.

허 영 민

## 《진상규명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남조선에서 여야간의 치열한 대립으로 실례를 거듭하던 《세월》호 특별법이 피폐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하여 각계의 불만과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가족대책위원들의 특별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8일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초불문화제를 또다시 열었다.

이날 광장에 모여온 수백명의 군중들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며 심상을 감할수 없다 하면서 민중이 힘을 모아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되는가를 감시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였다.

유가족들을 대표하여 나온 발언자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감행된 《세누리당》의원의 방해책동은 분노를 감할수 없게 한다고 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을 결의하였다.

민주화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호사는 통과된 특별법은 조사위원회의 실무자들을 대부분 《세누리당》이 추천하게 되었고 조사위원회의는 조사

남조선 각계 주장

그러나 피폐당국은 초기약속과는 달리 이번 특별법에 그들이 대한 피해보상대책과 관련하여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격분한 진도군 인민들은 피폐당국에 보상을 요구하며 시급히 대책을 취할것을 주장해나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남조선의 65개 시군자치단체들도 피폐국회 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을 벌려나갈것을 선언하였다.

진입항가자들은 그동안 유가족들과 민중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속 촉구해온데 반하여 특별법을 즐기며 벌려왔다고 하면서 진상규명을 한사코 회피하

는 피폐당국의 처사에 격분을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와 《국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계속하여 그들은 각계가 지난 200여일간 《세월》호 참사특별법제정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려왔던것처럼 앞으로도 반대투쟁으로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치인들은 다 음번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킬것을 선언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피폐당국의 《세월》호특별법제정에 그치지 않고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대중투쟁을 계속 촉구하며 이어나갈 의지를 피력하고있다.

본사기자

엄마진 우리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관하여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사실의혹》이니, 《강한 유감》이니 하고 양말을 부리고있다. 통일부 대변인은 제2차 북남고위급협상이 마치고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운 우리때문에 파탄났으니 떠들면서 오끼리 《북이 진정 평화와 남북관계개선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사대질을 해대며, 며칠전에도 피폐통일부장관은 《남북간 합의를 저버리는 신의없는 태도》니, 《일방적인 힘장강행》이니 하며 우리를 헐뜯던 꼴에 《전제조건을 내걸지 말고 회의를 나서야 한다.》고 비화정을 들추었다.

우리에 대한 정치, 군사적도발은 일삼으면서 북남관계를 대화도 접촉도 없는 완전과격으로 몰아간 장본인은 다음날인 남조선당국이다. 그런데도 피폐대장을 《결맞는 행동》과 《진실》을 운운하며 제편에서 우리를 걸고잡고있으니 정말 뉘서리치기 그지없다.

내외가 공인하고있는것처럼 지난 10월에 있는 우리 총정치국장일회의 인건방문은 악화일로를 걷고있던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남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 한 중대한 계기였다. 우리는 그것이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첫걸음으로서 위원을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관하여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사실의혹》이니, 《강한 유감》이니 하고 양말을 부리고있다. 통일부 대변인은 제2차 북남고위급협상이 마치고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운 우리때문에 파탄났으니 떠들면서 오끼리 《북이 진정 평화와 남북관계개선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사대질을 해대며, 며칠전에도 피폐통일부장관은 《남북간 합의를 저버리는 신의없는 태도》니, 《일방적인 힘장강행》이니 하며 우리를 헐뜯던 꼴에 《전제조건을 내걸지 말고 회의를 나서야 한다.》고 비화정을 들추었다.

우리에 대한 정치, 군사적도발은 일삼으면서 북남관계를 대화도 접촉도 없는 완전과격으로 몰아간 장본인은 다음날인 남조선당국이다. 그런데도 피폐대장을 《결맞는 행동》과 《진실》을 운운하며 제편에서 우리를 걸고잡고있으니 정말 뉘서리치기 그지없다.

내외가 공인하고있는것처럼 지난 10월에 있는 우리 총정치국장일회의 인건방문은 악화일로를 걷고있던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남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 한 중대한 계기였다. 우리는 그것이 파국에 처한

우수 없는 파국에 또 물아넣은 저들의 죄행에 대해서는 끝이 지지미를 때면서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무력대고 걸고잡고 《신의》와 《진실》을 운운하는것은 철면피한이 아니고서는 생각할수 없는 파멸적인 짓이다.

것을 진실이요 아무리 우기며 수업을 내리곤 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진실로 될수 없다. 피폐당은 그 누구를 닮았기 전에

저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행위부터 심각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실행행동으로 검증된다. 반공화국대결소동의 중단은 북남대화의 운명을 좌우하는 본질적이며 중핵적인 문제이다. 남조선당국이 속에 앙심을 품고 동족을 계속 걸고잡고 대결정쟁을 강화하던 이번 피폐당국은 비극적 사태를 맞을수밖에 없다.

남조선당국은 응답한 북남관계의 파국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권고를 새겨듣고 상대방을 자극하며 군사적정쟁을 불러오는 도발행위를 막기 위한 객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심 철 영

##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기념

끼르기즈스탄에서 7일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97돐을 기념하였다.

이 나라 대통령 알마즈베크 아임바예프는 쓰렌시끼르기즈스탄은 라후하고 뒤떨어진 농업국가로부터 문명하고 발전된 나라로 되었다고 하면서 공업의 발전, 무상치료, 공민들의 평등권보장 등은 이 시기에 이룩된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하였다.

끼르기즈스탄은 전세계의 창조적인 로력과 위훈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이날을 영연히 기념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 부강변모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이날을 맞아 나라의 곳곳에서 시위와 집회,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본인료가 존재할리가 없다.》는 열도당도않은 발언도 늘어놓고있다.

그는 정부가 대화를 통하여 현민족적인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것을 다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재정규율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

절대대통령 될바나 로우세프가 6일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재정규율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를 통제하고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할 립장 선언

만마대통령 레인 세인이 5일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정부가 대화를 통하여 현민족적인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것을 다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중간선거를 통해 본 미국식 《민주주의》의 진면모

선거에 약 37억US\$의 자금이 랑진되었다고 한다.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이겨서력을 확장을 목적으로 자금거두어들이기를 경쟁적으로 벌렸는데 당이 거어들인 자금은 각각 19억 2 000만US\$, 17억 6 000만US\$에 달하였다.

선거기간 두파세력은 텔레비존광고를 통해 상대방을 비방중상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소비하였다.

민주당은 가장 치열한 정략전이 벌어졌던 지역들중의 하나인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당선된 선거는 1억 800만US\$을

이슬람교협조기구가 7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당국의 계속되는 봉쇄조치와 무차별적인 군사적공격으로 하여 팔레스티나의 자자지대는 황폐되고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규탄하고 이를 국제법에 대한 반쪽한 위반으로, 극악한 인권유린행위로 랑인하였다.

지금도 동부부드스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이 그치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국제공동체가 유대

이슬람교협조기구가 7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당국의 계속되는 봉쇄조치와 무차별적인 군사적공격으로 하여 팔레스티나의 자자지대는 황폐되고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규탄하고 이를 국제법에 대한 반쪽한 위반으로, 극악한 인권유린행위로 랑인하였다.

지금도 동부부드스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이 그치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국제공동체가 유대

이슬람교협조기구가 7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당국의 계속되는 봉쇄조치와 무차별적인 군사적공격으로 하여 팔레스티나의 자자지대는 황폐되고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규탄하고 이를 국제법에 대한 반쪽한 위반으로, 극악한 인권유린행위로 랑인하였다.

지금도 동부부드스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이 그치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국제공동체가 유대